



수 학 보 고 서

소 속	디지털미디어학부 (대학(학부)/전공)	
파 견 국 가	미국	
파 견 대 학	나이아가라 대학교	
파 견 기 간	시작	2025.01 (년/월)
	종료	2025.05 (년/월)

준비 과정	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기까지 과정
	교환학생은 대학생할 중 꼭 도전해보고 싶은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. 원래는 빠른 취업을 목표로 삼고 있었기에, 3학년 때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인턴을 했습니다. 그러나 인턴을 하며 오히려 해외경험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. 그 결과 휴학을 결심하게 되었고 토익에 집중하며 교환학생을 위한 어학 성적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
	파견교 지원 과정
	영어권 국가에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영어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. 그 중에서도 학생들의 후기가 많고 여행하기에도 좋은 위치에 있는 나이아가라 대학교(Niagara University)에 끌려, 1지망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
	파견국가 출국 준비 과정 (비자, 항공권, 준비물 등)
	국제교류처에는 서약서, 과목이수계획서, 항공권 및 보험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파견교에는 어플리케이션 서류(어학성적점수, 성적증명서, 성적증명서 요약서, 여권사본, 가족 및 개인 재정증명서)를 제출해야 합니다. 유학생 건강검진과 F1비자 발급도 중요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해가시면 됩니다!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아서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.
	캐리어는 28인치 2개와 백팩을 들고 갔는데, 캐리어는 가서 버릴 만한 것으로 들고가시는 걸 추천합니다. 저는 다 새 거로 들고가서 후회했습니다.
파견 학교	공항 픽업 & 오리엔테이션
	개강 전날 버팔로 공항에 도착했으며, 픽업은 학교 측에서 무료로 제공해주었습니다. 저는 봄학기 파견이라 따로 오리엔테이션이 없었는데, 이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. 미국 대학의 경우 가을학기가 신입생이 입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, 일주일에 걸쳐 다양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. 하지만 봄학기는 한국 학기로 치면 2학기에 해당되어

	<p>학기 중간에 합류하는 셈이기 때문에, 따로 오리엔테이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.</p> <p>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계획 중이시라면 무조건 가을학기를 추천 드립니다!!</p>
<p>수업 & 학교 활동</p>	
<p>저는 한국에서 들어볼 수 없는 수업을 위주로 선택해 수강하였습니다. 전반적으로 크게 부담 가는 수업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. 학점에 연연하지 마시고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을 고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. 또 학교에서 진행하는 활동 및 행사에 많이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. 빙고나잇, 카지노나잇, 가라오케나잇, 버팔로 라크로스 경기, 토론토 야구 경기 등에 참여했는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.</p>	
<p>기숙사 및 학교 내 편의 시설</p>	
<p>기숙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O'Donoghue: 저는 1인실인 O'd로 배정받았습니다. 화장실이 진짜 넓고 깔끔합니다. 고학년이 주로 머무르기 때문에 조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단점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. 하지만 저는 2층에 거주했기 때문에 힘들진 않았습니다. - Lynch: 1인실이나 개인적으로 O'd가 위치나 시설면에서 더 나은 거 같습니다. - Seton: 헬스장이랑 가까운 것이 장점이나 주로 저학년이 살기 때문에 시끄럽다고 합니다. - O'Shea: 운동부 친구들이 많이 사는 거 같았고 Seton처럼 저학년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위생적으로 깔끔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. - Clet: 다이닝홀이랑 가까운 것이 장점이나 시설이 조금 낡았고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. - Apartment: 셰어하우스 느낌인데 가장 비싸고 한국 교환학생은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	
<p>학교 내 편의 시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Dining Commons 저는 무제한 밀플랜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. 피자가 정말 맛있고 서브웨이처럼 저만의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어서 에그마요도 정말 많이 만들어 먹었습니다. 메뉴가 그렇게 자주 바뀌지는 않아 질릴 때도 있지만 그 안에서 조화를 잘하면 또 색다르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아이스크림, 과일, 쿠키, 케이크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시도때도 없이 갔습니다. 대신 살이 정말 많이 찹니다.. - Gallagher Center 1층에는 라운지가 있고 푸드코트, 편의점, 팀홀튼 등이 있어 간단하게 식사나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. 갤리골드 100달러(학비포함)로 이곳에서 간식을 많이 사먹었습니다. 2층에는 다목적 체육관이 있으며, 남자 농구경기를 보러 많이 갔습니다. - Dwyer Arena (드와이어 아레나) NHL 규격 아이스링크, 스타벅스 등을 갖추고 있으며,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러 자주 갔습니다. 이곳에서 아이스링크도 타고 DJ를 불러 학교 행사 및 공연을 했습니다. - Kiernan Recreation Center 	

	<p>수영장, 피트니스 시설, 체육관 등이 있습니다. 시설이 너무 잘되어 있어 운동하기 좋았고 천국의 계단이란 수영하러 자주 갔던 거 같습니다.</p> <p>-도서관</p> <p>시험기간에 자주 갔고 스터디룸도 있어서 친구들과 오순도순 모여 공부하기 좋습니다.</p>
주 변 환 경	<p>거주지 주변 지역 정보</p> <p>나이아가라 폭포, 버팔로, 토론토와 가까워서 수업이 없는 주말에 쉽게 나갈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인 거 같습니다!</p> <p>저는 금공강이었기 때문에 매주 금, 토, 일마다 버팔로 클럽, 루이스턴 펍, 나이agara폴스 캐나다사이드 펍, 토론토 여행, 나이아가라 폭포 근교 여행을 많이 갔습니다.</p>
	<p>파견 대학 소재지 지역 정보</p> <p>뉴욕주 루이스턴에 위치하고 있어서 암트랙이나 비행기를 타고 주변 나라를 여행하기 편하다고 생각합니다.</p> <p>한국에서 버팔로까지 직항이 없어 최소 한 번은 경유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개강 전에 먼저 들어가 일주일 간 뉴욕시티 여행을 했습니다.</p> <p>스프링브레이크 기간에는 서부여행(샌프란, LA, 샌디애고, 라스베가스, 그랜드캐년 투어)을 했으며 이스터 때는 캐나다여행(토론토, 몬트리올, 퀘벡)을 했습니다.</p> <p>이외에도 학교 동아리 HTA에서 주관하는 콜로라도 덴버 트립에 참여했으며, 학기 중에 시카고, 종강 후에는 뉴욕시티, 보스턴, 밴쿠버 여행을 했습니다.</p>
	<p>등록금 (해당 학생만)</p> <p>명지대학교 등록금 납부했습니다.</p>
	<p>기숙사 비용 (해당 학생만, 학기당)</p> <p>기숙사 1인실 기준 한화 약 1410만원 지불했습니다. 하필 환율이 1400원 대를 훌쩍 넘는 시기여서 정말 비쌌습니다..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정말..</p> <p>(기숙사, 보험, 무제한 밀플랜, 교재비, 교환학생 비용 등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.)</p>
	<p>추가 비용 (교재비, 보험 등)</p> <p>다시 돌아간다면 교재비는 OPTION OUT 할 거 같습니다. 생각보다 책을 잘 보지 않으니 참고하세요.</p>
비 용	<p>생활비</p> <p>정확히는 모르나 등록금, 기숙사비용 이외에 왕복비행기, 비자발급비, 생활비 및 여행비 등의 비용을 1000만원 잡고 갔습니다.</p>
	<p>한달 평균 지출 비용</p> <p>자기 쓰기 나름인 거 같습니다. 저는 미국에 온 김에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</p>

	<p>서 여행에 돈을 많이 썼던 거 같습니다.</p> <p>뉴욕 120만원, 서부 300만원, 덴버트립 50만원, 시카고 50만원, 이스터 여행 80만원, 종강 후 100만원 정도 잡고 사용한 거 같습니다.</p>
<p>교환학생 기간 동안 느낀 점</p>	
<p>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.</p> <p>미국 친구들과 함께 파티에도 가고, 여행도 다니면서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. 저는 영어를 더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외국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미국에서 잘 적응하고 즐겁게 지내려면, 무엇보다도 외향적인 태도가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. 4개월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버릴 만큼 즐거운 나날들이었습니다. 만약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가을학기에 가서 1년 파견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싶습니다. 교환학생은 단순히 공부를 넘어,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. 교환학생은 대학 생활 중 가장 잊지 못할 추억이 되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.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!</p>	
<p>사진 첨부 (최소 5장)</p>	
<div data-bbox="389 992 1204 1456">  </div> <div data-bbox="330 1505 1264 1886">  </div>	

